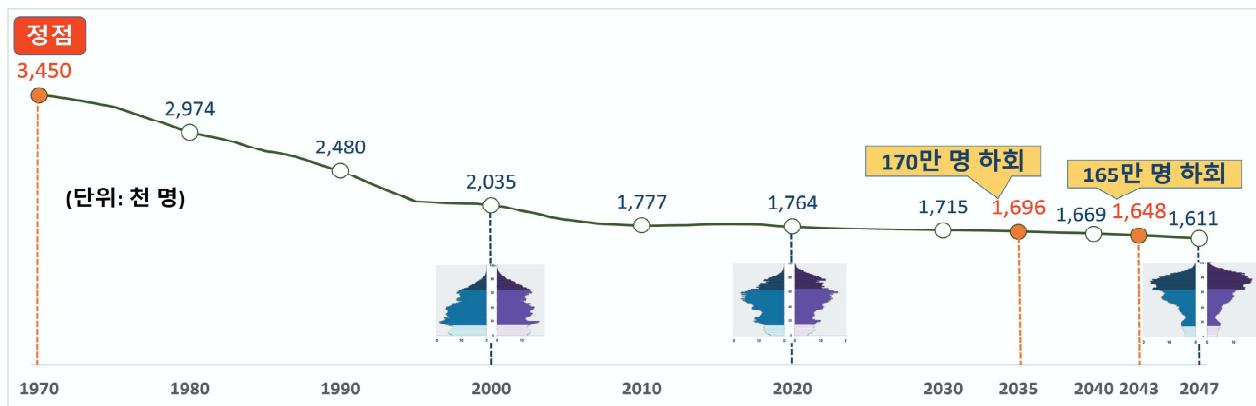


100대 통계지표로 본 전라남도 변화상(요약)

전남 인구, 2020년 1,764천 명에서 향후 2047년 1,611천 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
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총부양비가 2020년 53.6명에서 2047년 120.6명으로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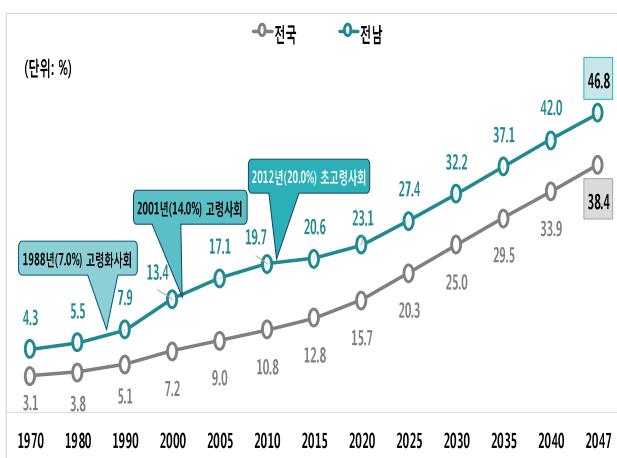
- 전남 인구는 1970년(3,450천 명) 정점 이후 2020년에는 1,764천 명까지 감소하였으며, 향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47년에는 1,611천 명을 기록할 전망
 * 주요 인구변화 시기: 2035년(1,696천 명) 170만 명 하회, 2043년(1,648천 명) 165만 명 하회

〈 추계인구(1986~2047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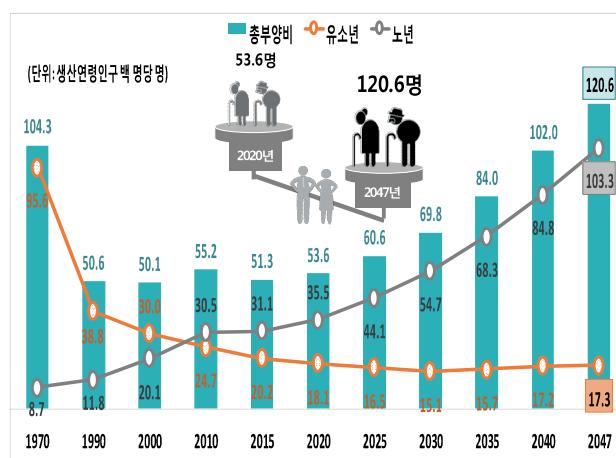


-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4.3%에서 2012년 20.0%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20년 23.1%까지 상승, 향후 2047년에는 46.8%로 높아질 전망
- 총부양비(생산연령인구 백 명당)는 2020년 53.6명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향후 2047년에는 120.6명에 이를 전망

〈 고령인구 비율(1970~2047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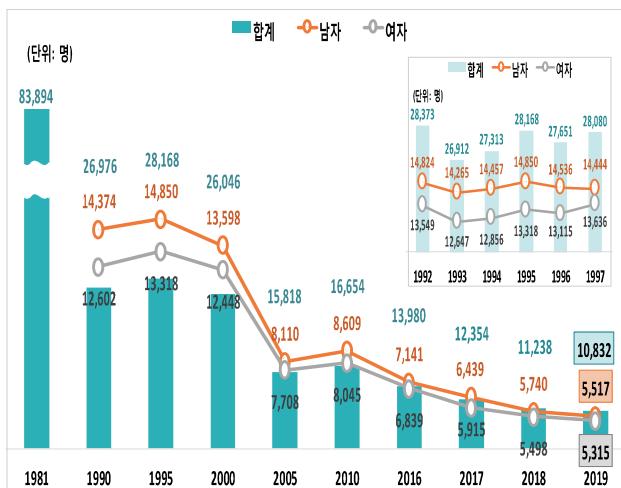
〈 부양비(1970~2047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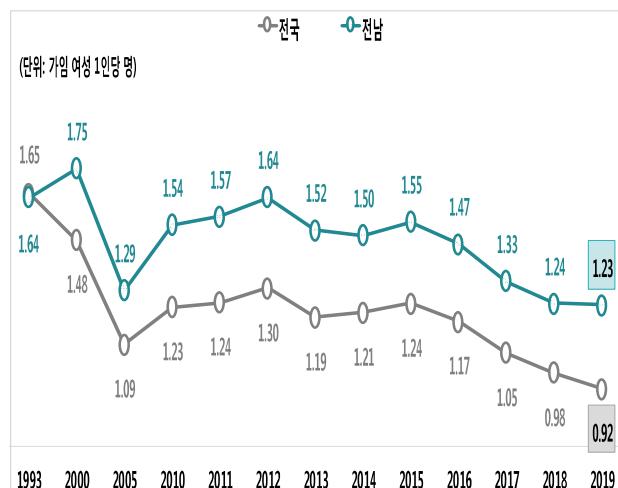
**전남 출생아 수(합계출산율), 2019년 10,832명(1.23명)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
평균 초혼연령, 남성은 2004년(30.18세), 여성은 2019년(30.07세)부터 30세를 상회**

- 출생아 수는 1981년(83,894명) 정점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10,832명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
- 합계출산율은 2019년 1.23명으로 1993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

〈 출생아 수(1981~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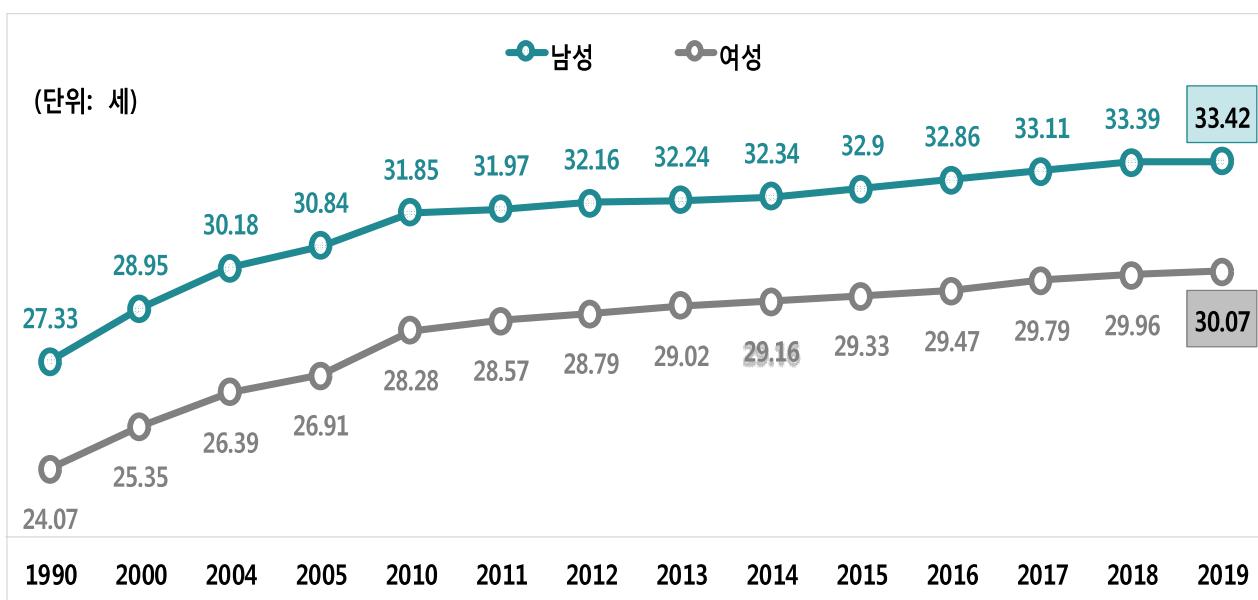


〈 합계출산율(1993~2019) 〉



- 평균 초혼연령은 2019년 남성 33.42세, 여성 30.07세로 1990년 대비 각각 6.09세, 6.00세 높아졌으며, 남·녀 간의 차이(남성-여성)는 1990년 3.26세에서 2019년 3.35세로 확대
- 남성은 2004년(30.18세), 여성은 2019년(30.07세)부터 30세를 넘어서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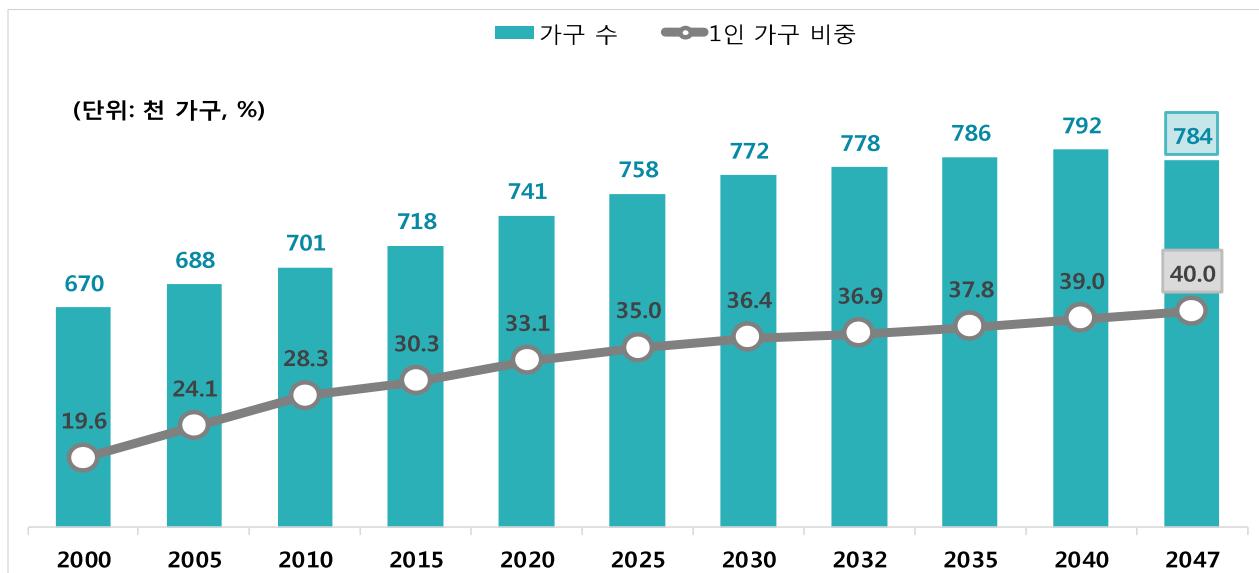
〈 초혼 연령(1990~2019) 〉



**전남 1인 가구 비중, 2020년 33.1%에서 향후 2047년에는 40.0%까지 확대될 전망
다문화가구(가구원)는 2018년 13,342가구(46,658명)로 2010년 이후 증가 추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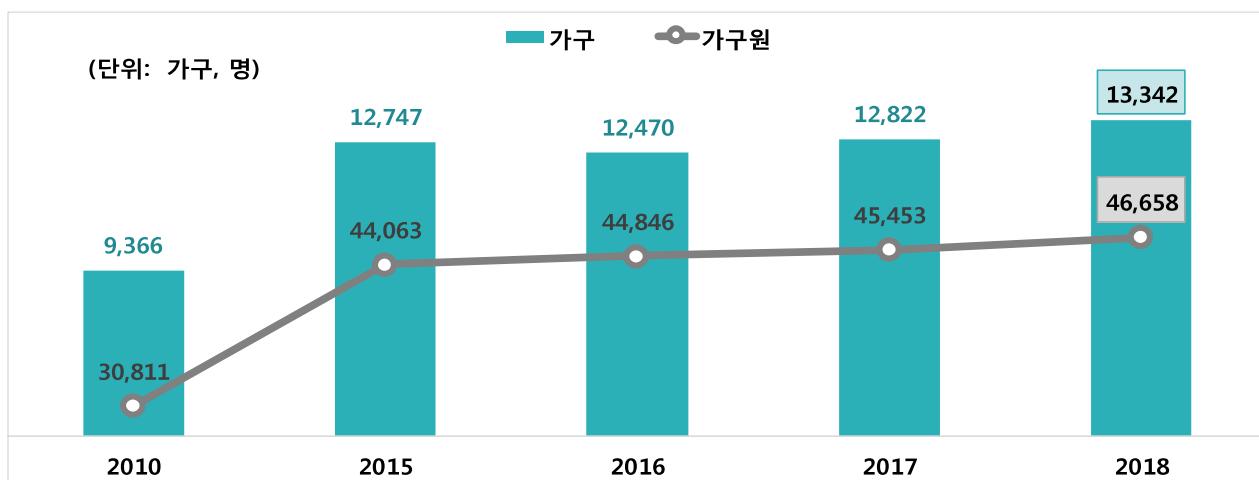
- 가구 수는 2020년 741천 가구로 2000년(670천 가구) 대비 71천 가구 증가하였으며, 2040년(792천 가구)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전망
- 1인 가구 비중(전체가구 대비)은 2020년 33.1%로 2047년에는 40.0%까지 확대될 전망

〈 가구 수 및 1인 가구 비중(2000-2047) 〉



- 다문화가구는 2018년 13,342가구로 2010년(9,366가구) 대비 3,976가구 증가 하였으며, 201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
- 다문화가구원은 2018년 46,658명으로 2010년(30,811명) 대비 15,847명 증가 하였으며,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
〈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수(2010-2018) 〉



전남 초·중학생 수, 초등학생은 2016년 이후 소폭 증가세, 중학생은 2007년 이후 감소세 고용률(청년실업률)은 2019년 63.4%(9.9%)로 2000년 대비 1.4%p 상승(1.0%p 상승)

- **초등학생 수**(인구 10만 명당)는 2019년 5,081명으로 1999년(7,524명)에 비해 2,443명 감소하였으며, 2016년(4,884명)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
- **중학생 수**(인구 10만 명당)는 2019년 2,444명으로 1999년(3,910명)에 비해 1,467명 감소하였으며, 2007년(3,941명)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

〈 초등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(1999~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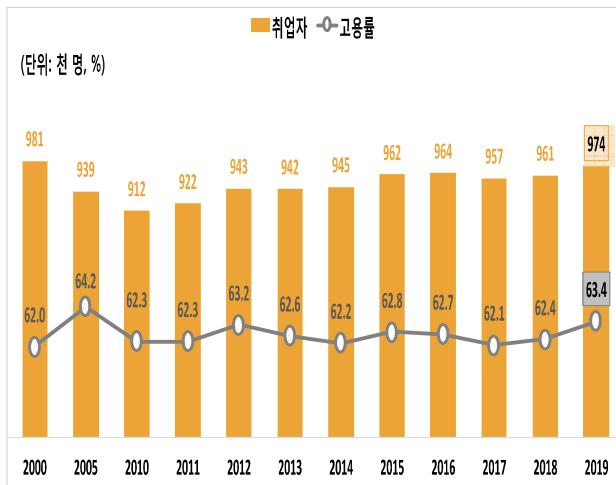


〈 중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(1999~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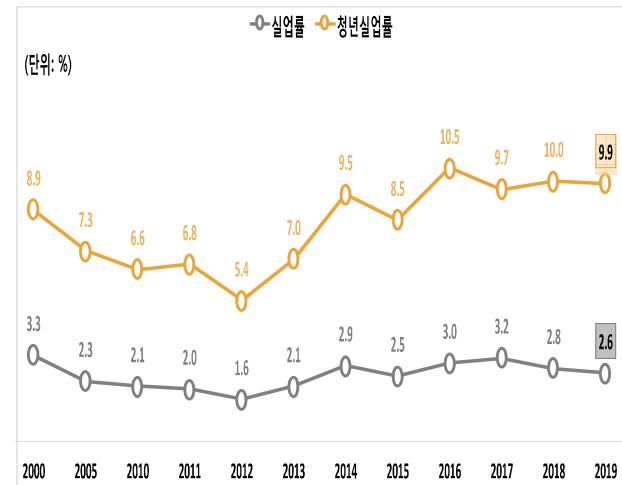


- **취업자 수**는 2019년 974천 명으로 2000년(981천 명)에 비해 7천 명 감소하였으며, 고용률은 63.4%로 2000년(62.0%) 대비 1.4%p 상승
- **실업률**은 2019년 2.6%로 2000년(3.3%)에 비해 0.7%p 하락하였으며, 15~29세의 청년실업률은 9.9%로 2000년(8.9%) 대비 1.0%p 상승

〈 취업자 및 고용률(2000~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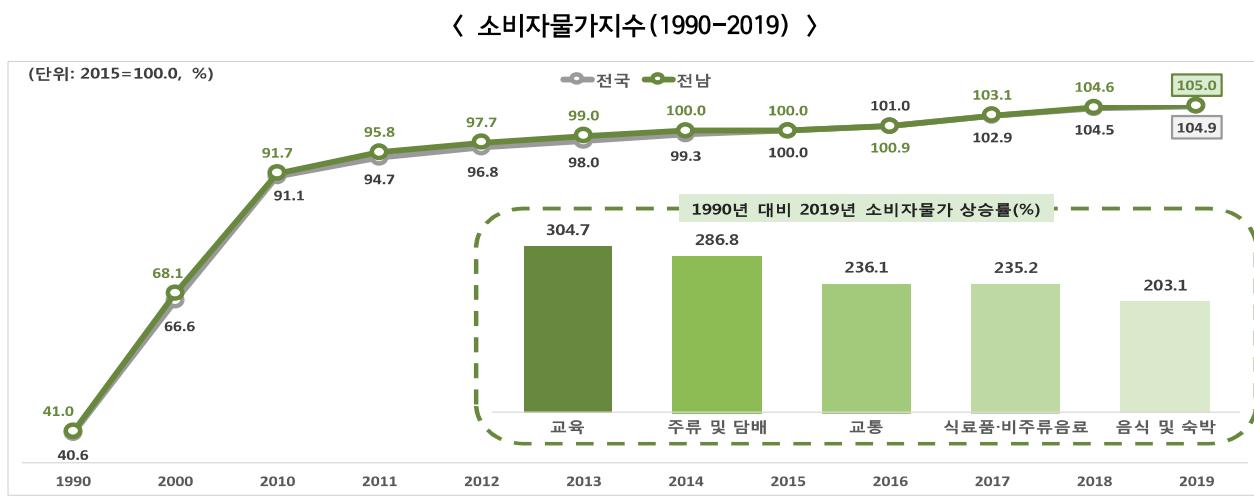


〈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(2000~2019) 〉



**전남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(1990년 대비), 교육비가 304.7%로 가장 많이 상승
주요 품목 중 짜장면 가격은 1990년 약 1,100원에서 2019년 5,500원으로 상승**

-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 105.0로 1990년(41.0) 대비 155.9% 상승하였으며, 전년대비로는 0.4% 상승
- 1990년 대비 크게 상승한 부문은 교육비(304.7%), 주류 및 담배(286.8%), 교통(236.1%), 식료품·비주류음료(235.2%), 음식 및 숙박(203.1%) 등의 순



- 주요 품목별 지수를 살펴보면, 짜장면은 1990년 23.150에서 2019년 117.37로 407.0% 상승하였으며, 사립대학교 납입금은 25.411(1990년)에서 98.99(2019년)로 289.6% 상승
- 이를 가격으로 환산^{*}해 보면, 짜장면은 1990년 1,085원에서 2019년 5,500원으로 상승하였고, 사립대학교 납입금은 898천원에서 3,500천 원으로 상승한 셈임

* 해당 품목의 2019년 가격을 가정한 후 해당연도와 2019년 품목지수의 비를 곱하여 산출

〈 전남 주요 품목의 소비자물가 변화(1990, 2005, 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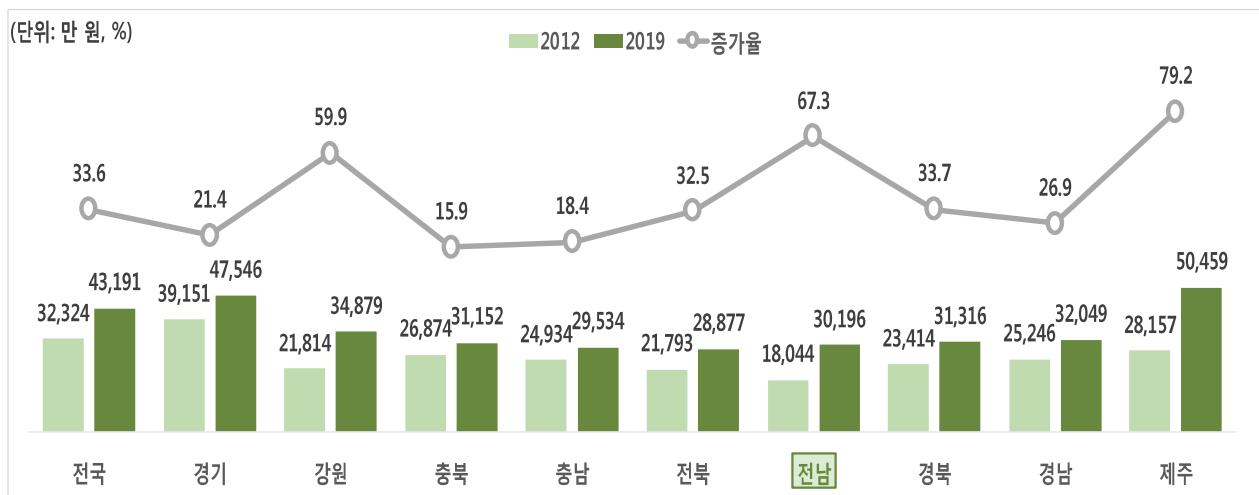


* ()내의 수치는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임

**전남 가구 자산, 2019년 30,196만 원으로 9개 도(道) 중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
의료기관 수(인구 10만 명당)는 2017년 105개로 전국(128개)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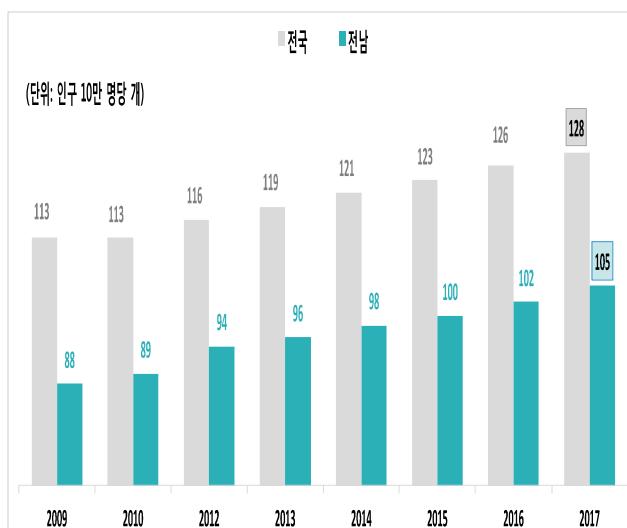
- 가구 자산은 2019년 30,196만 원으로 2012년(18,044만 원)에 비해 67.3% 증가 하였으나, 9개 도(道) 중 전북(28,877만 원), 충남(29,534만 원)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음
- 2012년 대비 증가율은 9개 도(道) 중 제주(79.2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

〈 9개 도별 가구 자산(2012, 2019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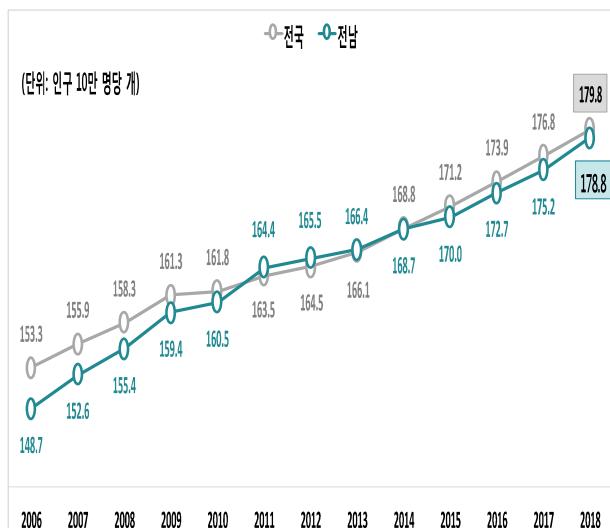


- 의료기관 수(인구 10만 명당)는 2017년 105개로 2009년(88개)에 비해 19.5% 증가 하였으나, 전국(128개)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
- 요양기관 수(인구 10만 명당)는 2018년 178.8개로 2006년(148.7개)에 비해 20.2% 증가하였으며, 전국 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상승세를 지속

〈 의료기관 수(2009-2017) 〉



〈 요양기관 수(2006-2018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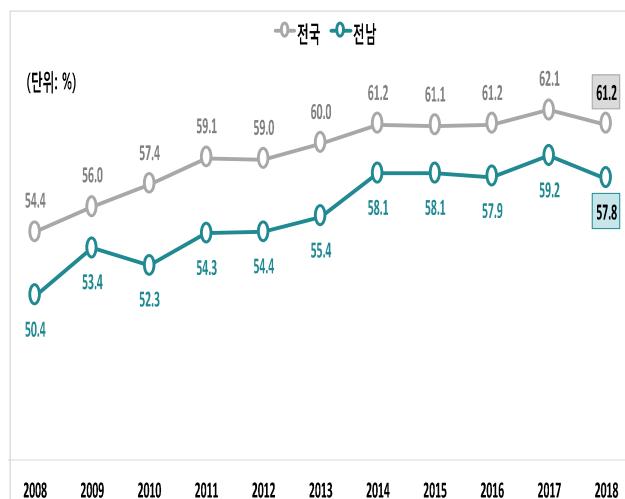
**전남 2018년 현재 흡연율은 21.2%, 음주율은 57.8%로 전국 보다 낮은 수준
삶의 만족도(「만족」 응답 비율), 2019년 남성 42.1%, 여성 37.8%로 2009년 대비 모두 상승**

- 현재 흡연율은 2018년 21.2%로 2008년(22.5%)에 비해 1.3%p 낮아졌으며, 전국 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지속
- 음주율은 2018년 57.8%로 2008년(50.4%)에 비해 7.4%p 높아졌으나,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

〈 현재 흡연율(2008~2018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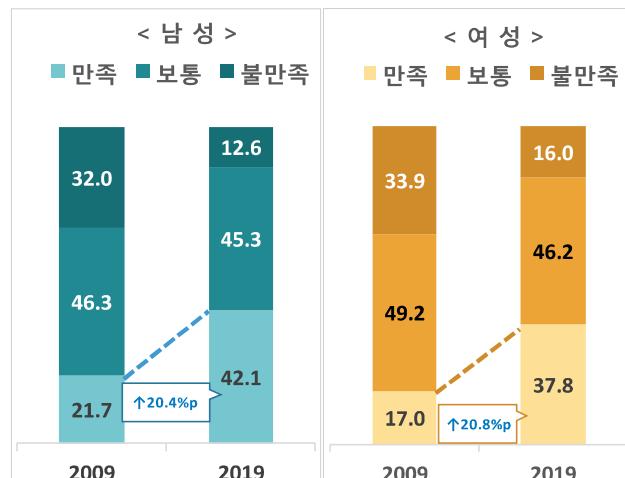


〈 음주율(2008~2018) 〉



-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, 2019년 「만족」 응답 비율은 39.9%로 2009년(19.2%)에 비해 20.7%p 상승
- 남·녀의 「만족」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, 2019년 남성 42.1%, 여성 37.8%로 2009년 대비 남성은 20.4%p, 여성은 20.8%p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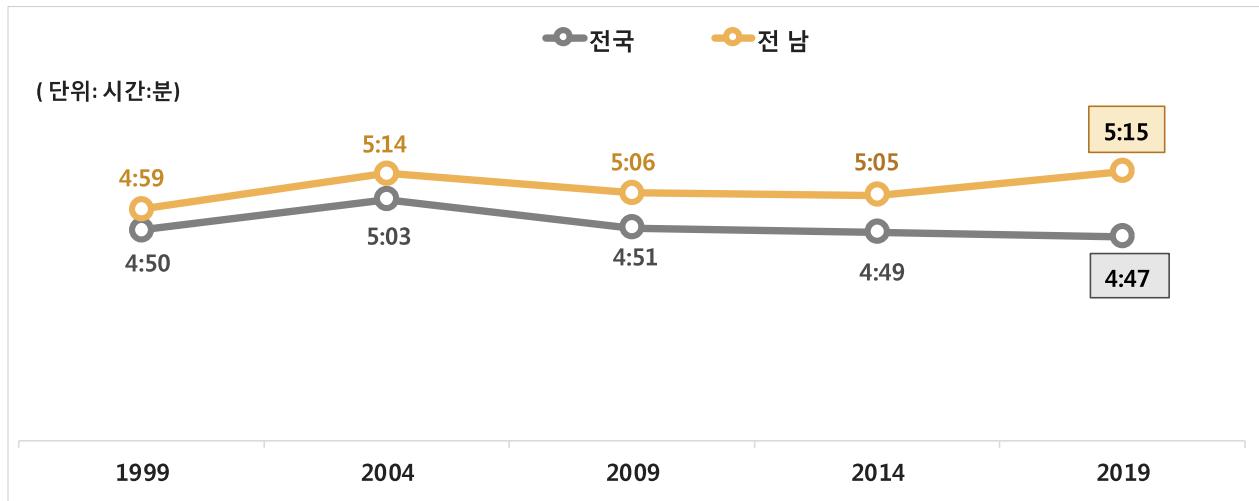
〈 삶의 만족도(2009~2019) 〉



**전남 평균 여가 시간, 2019년 5시간 15분으로 10년 전(1999년)에 비해 16분 증가
사망원인별 사망률은 2018년 악성신생물(암), 폐렴, 심장 질환 등의 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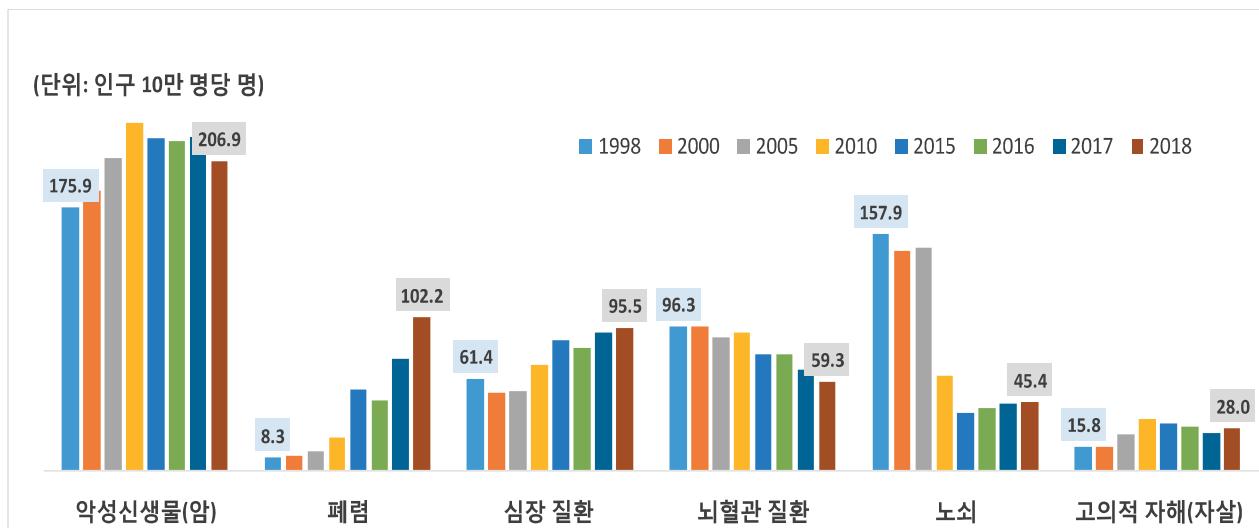
- 요일 평균 여가 시간은 2019년 5시간 15분으로 1999년(4시간 59분)에 비해 16분 증가하였으며, 2004년(5시간 3분)부터 5시간 이상을 유지
- 1999년부터 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

〈 여가 시간(1999~2019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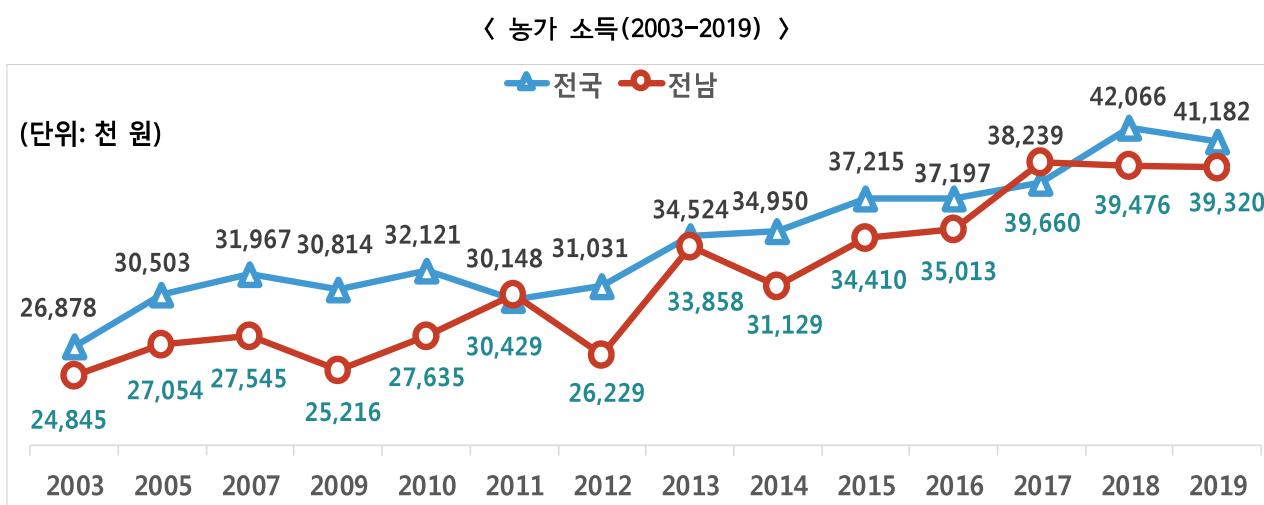
- 2018년 사망원인별 사망률(인구 10만 명당)은 악성신생물(암)(206.9명), 폐렴(102.2명), 심장 질환(95.5명) 등의 순임
- 10년 전(1998년)에는 악성신생물(암)(175.9명), 노쇠(157.9명), 뇌혈관 질환(96.3명)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〈 사망원인별 사망률(1998~2018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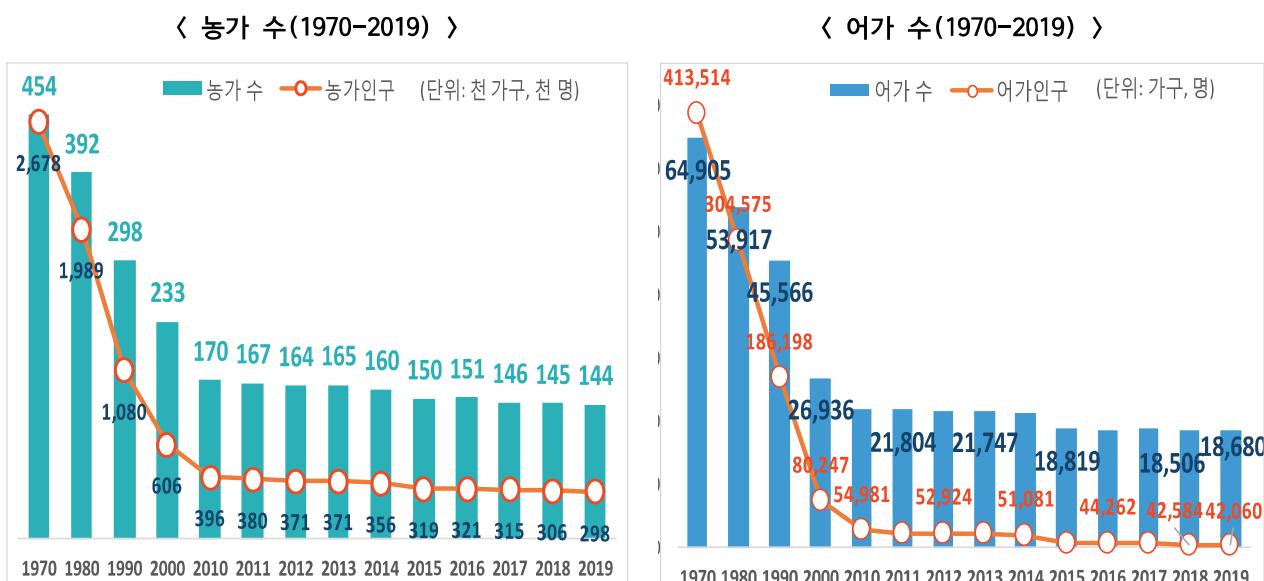


**전남 농가 소득, 2019년 39,320천 원으로 전국(41,182천 원) 보다 다소 낮은 수준
농가(어가) 수는 2019년 144천 가구(18,680가구)로 1970년 대비 68.3% 감소(71.2% 감소)**

- 농가 소득은 2019년 39,320천 원으로 2003년(24,845천 원)에 비해 58.3% 증가 하였으며, 전국(41,182천 원)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
- 전국 9개 도(道) 중에서는 경기(50,576천 원), 제주(48,963천 원), 충남(44,019천 원), 전북(41,214천 원)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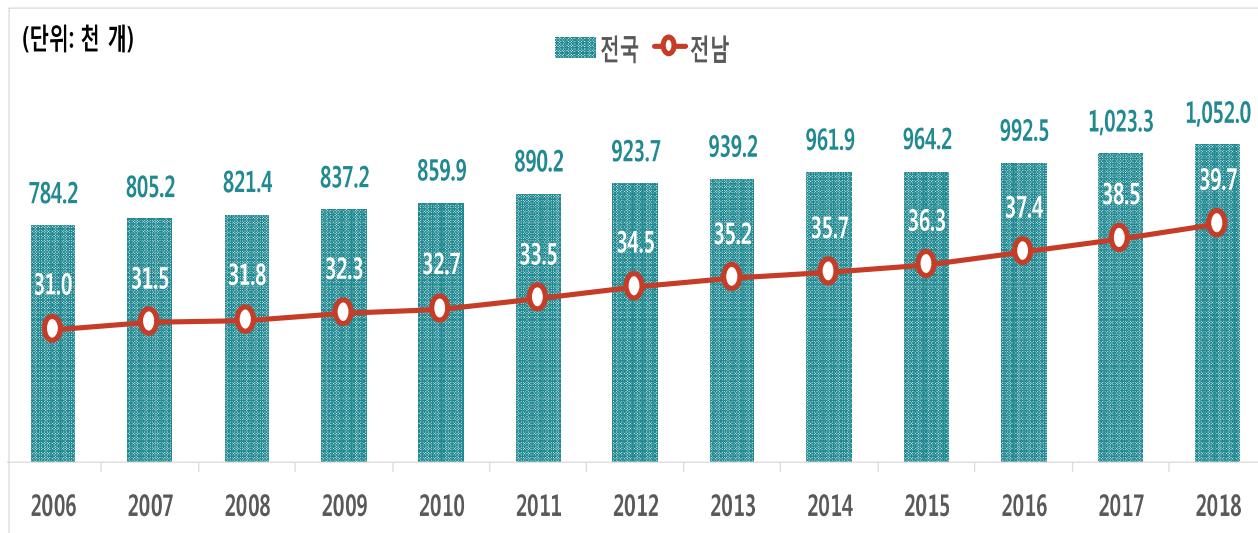
- 농가(농가인구) 수는 2019년 144천 가구(298천 명)로 1970년 454천 가구(2,678천 명) 대비 68.3%(88.9%) 감소하였으며,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
- 어가(어가인구) 수는 2019년 18,680가구(42,060명)로 1970년 64,905가구(413,514명) 대비 71.2%(89.8%) 감소하였으나, 전년에 비해 어가(어가인구) 수는 소폭 증가(감소)



전남 서비스업 사업체 수, 2018년 39.7천 개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0.6대로 2003년(0.3대) 대비 0.3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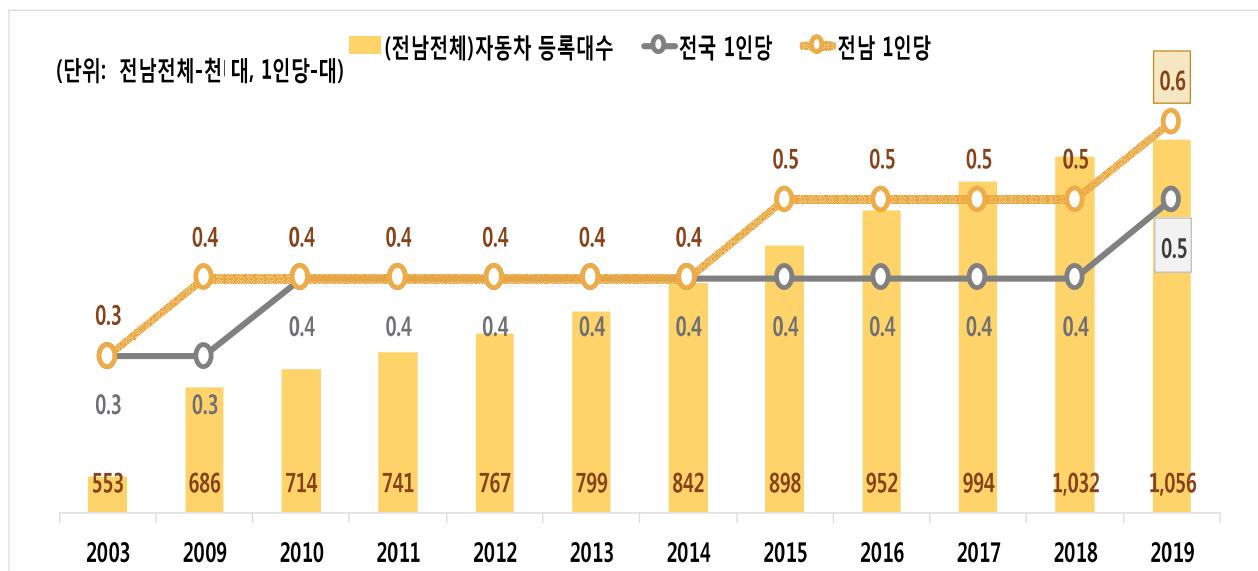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18년 39.7천 개로 2006년(31.0천 개)에 비해 28.1% 증가하였으며, 전국(1,052.0천 개) 대비 비중은 3.8% 수준을 보임
- 2006년(31.0천 개)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(35.2천 개)부터는 35천 개를 상회

〈 서비스업 사업체 수(2006~2018) 〉



-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0.6대로 2003년(0.3대)에 비해 0.3대 증가하였으며, 전국(0.5대)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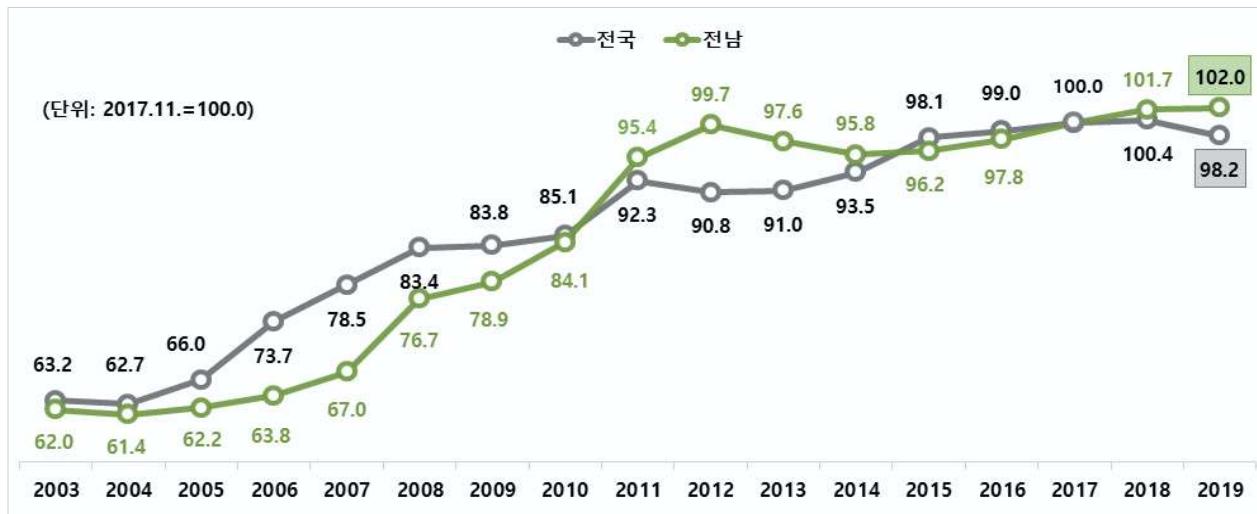
〈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및 (전남전체)자동차 등록대수(2003~2019) 〉



**전남 아파트 매매가격지수, 2019년 102.0으로 2003년(62.0) 대비 64.5% 상승
1인당 개인소득은 2018년 18,207천 원으로 2000년(7,714천 원) 대비 136.0% 증가**

-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9년 102.0으로 2003년(62.0)에 비해 64.5% 상승 하였으며, 2014년(95.8) 이후 상승세를 지속
- 전국 17개 시·도 중 대전(109.3), 서울(108.8), 광주(103.1), 대구(103.0)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임

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(2003~2019) 〉



- 1인당 개인소득은 2018년 18,207천 원으로 2000년(7,714천 원)에 비해 136.0% 증가하였으며, 9개 도(道) 중 전북(18,141천 원), 경북(18,185천 원)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음
-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

〈 1인당 개인소득(2000~2018) 〉

